



天台宗開宗1200年

전교대사의 생애와 가르침

伝教大師の生涯と教え



序言 (서언)

806년 1월 26일, 天臺宗 (천태종)이 當時 (당시)의 朝廷 (조정)으로부터 國家公認 (국가공인)의 佛敎 (불교)로 인정된 후, 2006년은 정확히 1200년이 되는 기념할 만한 해였습니다.

宗祖 (종조) 傳敎大師 (전교대사) 最澄 (최정)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여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法華 (법화) 一乘 (일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僧侶 (승려)를 育成 (육성)할 것을 申請 (신청)하여 認可 (인가)를 받았습니다.

大師 (대사)의 誓願 (서원)은 天臺宗 (천태종)의 새로운 公認 (공인)과 함께 當時 (당시) 佛敎界 (불교계)의 각 宗派 (종파)가 모든 사람들의 救濟 (구제)를 위해 共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朝廷 (조정)은 天臺宗 (천태종)을 公認 (공인)함과 同時 (동시)에 각 宗派 (종파)에 있어 僧侶 (승려)에 定員 (정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후 天臺宗 (천태종)은 1200년이 지난 現在 (현재)에 이르기까지 大師 (대사)의 가르침의 法燈 (법등)을 傳 (전)하고 오랫동안 日本佛敎 (일본불교)의 中心 (중심)으로서 많은 宗派 (종파)를 일궈 내어 日本文化 (일본문화)의 源泉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2005년 10월, 比叡山 (히에이산) 根本中堂 (근본중당)에서 열린 開宗 (개종) 1200년 記念 (기념) 慶讚 (경찬) 大法要 (대법요)에서는 26개 이상 (이상)의 日本 (일본) 佛敎 (불교)의 각 宗派 (종파) 關係者 (관계자)가 모여 慶祝 (경축) 法要 (법요)를 올렸습니다. 또 1997년에는 各國 (각국)의 宗教 (종교) 指導者 (지도자)를 招待 (초대)하여 처음으로 比叡山 世界宗教人 (세계종교인) 平和祈願法會 (평화 기원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回數 (횟수)를 거듭해 온 이 법회는 올해에도 2007년 8월, 20周年 (주년)을 記念 (기념)하기 위한 行事 (행사)의 一環 (일환)으로서 開催 (개최)됩니다.

이러한 宗教 (종교)와 宗派 (종파)를 超越 (초월)한 活動 (활동)도 또한 宗祖 (종조) 傳敎大師 (전교대사)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天臺宗 (천태종)의 1200년에 이르는 行步 (행보)의 源泉 (원천)이 宗祖 (종조) 傳敎大師 (전교대사)의 生涯 (생애)와 그 가르침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冊子 (책자)를 통해서 宗祖 (종조)의 가르침이 海外 (해외)에 계신 여러분께도 널리 함께 하기를 誓願 (서원)합니다.

2007년 7월 吉日 (길일)

天臺宗宗務總長 (천태종 종무총장) 濱中光禮

傳敎大師의 生涯 (생애) 와 思想 (사상)

「나라의 보물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보물이란 불도(佛道)를 구하는 마음이다」. 1200년 전에 일본 天臺宗(천태종)을 개창한 傳敎大師(전교대사) 最澄(사이초 766 [767] ~ 822)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 각자의 입장과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자신의 일에만 집착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계속하여 활동하는 사람이 진정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最澄은 「눈 앞의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最澄이 指向(지향)했던 것은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各自(각자)가 처한 條件(조건) 하에서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最澄은 天平神護2年(766), 近江國(오미고쿠), 지금의 滋賀縣(시가켄) 大津市(오오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廣野(히로노)」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生年(생년)에 대해서는 戶籍(호적) 상으로는 天平(덴표)神護(진고)2年(766)으로 되어 있는데 一說(일설)에는 神護景雲(케이운)元年(767)이라 하기도 합니다.

父親(부친)은 三津首百枝(미쓰노오비토모모에)라는 분으로 그 先祖(선조)는 中國(중국) 後漢(후한) 시대 황제의 자손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最澄은 13세 때 近江(오미)의 國分寺(고쿠분지)에 들어가 行表(교효)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세 때 出家(출가)하여 僧籍(승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최초의 儀式(의식)인 得度(득도)를 허가받아 본격적으로 佛敎(불교)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이 때 「最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延曆(엔랴쿠)4년(785)4월, 20세의 最澄



은 奈良(나라)의 東大寺(도다이사)에서 小乘戒(소승계)를 받고 정식으로 승려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 승려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授戒(수계)를 받은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比叡山(히에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最澄의 고향에서 가까운 比叡山은 예로부터 靈山(영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入山(입산)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說(설)이 있는데 奈良에서의 체험에 의해 俗世(속세)에 無常(무상)을 觀(관)하고 또 깊은 자기 反省(반성)을 根幹(근간)으로 山林(산림)에서의 더 깊은 修學(수학)의 뜻을

품었던 것도 그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입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最澄은 修行(수행)의 決意(결의)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 『願文(간문)』을 저술하여 다섯 가지 서원을 세웠습니다.

- 一 나는 사물을 보는 이 눈과 뜻이 부처에 가깝도록 淸淨(청정) 해지기 전에는 결코 세상 사람을 引導(인도) 하지 않을 것이다.
 - 二 나는 진리를 꿰뚫은 마음을 이루기 전에는 佛道(불도) 이외의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 三 나는 계율을 具足(구족)하기 전에는 施主(시주)가 초대하는 法會(법회)에 결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 四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부처의 지혜를 체득하기 전에는 세속적인 교제·교류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 五 나는 이 現世(현세)에서 수행하여 얻은 功德(공덕)을 결코 나 자신만의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널리 回向(회향)하여 모두가 이 위 없는 깨달음을 얻도록 할 것이다.
-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最澄의 범상치 않은 결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最澄은 比叡山(히에이산)에 올라 修行(수행)과 學問(학문)으로 일관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最澄을 欽慕(흠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들고 弟子(제자)들도 점차 불어났던 듯 합니다. 延曆7년(788), 最澄은 比叡山을 天臺敎學(천대 교학)에 근거한 새로운 불교의 根本道場(근본도장)으로 삼고자 比叡山



寺(히에이산사)의 건립을 결의하여 스스로 藥師如來像(약사여래상)을 安置(안치)하고 燈(등)을 밝혀 그 등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도록 서원했습니다. 이 때의 등이 1200년 간 현재까지 比叡山의 根本中堂(근본중당)을 밝혀 주는 「不滅(불멸)의 法燈(법등)」입니다. 이 절은 처음에 一乘止觀院(일승지관원)이라 呼稱(호칭)하였다가 나중에 根本中堂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諸堂(제당)도 점차로 정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延曆16년(797), 最澄은 32세의 나이로 朝廷(조정)으로부터 「內供奉十禪師(내공봉 십선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宮中(궁중)에 설치된 道場(도장)에서 天皇(천황)의 측근에 奉仕(봉사)하는 유력한 승려의 한 사람으로 뽑힌 것을 의미하는 일로, 最澄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比叡山에 있어 수행 생활의 기초가 확립되고 敎團(교단)으로서의 형태가 定立(정립)되자 最澄은 불교 경전의 전집(全集)이라고 할 수 있는 一切經(일체경)을 갖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入山(입산) 생활 중이던 동료나 제

자들이 盡力 (진력) 했는데 한 자 한 자 書寫 (서사) 하는 일이기 때문에 人力 (인력) 과 費用 (비용) 면에서 制限 (제한) 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最澄은 奈良의 각 절에 援助 (원조) 를 依賴 (의뢰) 하였는데 이에 응하여 大安寺 (다이안지) 의 승려가 全面的 (전면적) 으로 협력해 주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또 東國 (도우고쿠) 의 유력한 불교 지도자인 道忠 (도추 735頃~ 800

命日 (명일) 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霜月會 (시모쓰키에) 의 淵源 (연원) 이 되었습니다. 法華十講은 延曆 17년 (798) 부터 매년 比叡山에서 열려 延曆 20년 (801) 에는 奈良의 高僧 (고승) 10人 (인) 을 초대하는 등 그 규모도 충실하여 最澄의 학식은 점차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頃) 은 最澄의 뜻을 받들어 많은 양의 佛典 (불전) 을 보내 주었습니다. 道忠의 교단은 그 후에도 最澄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比叡山에 경전이 완비되자 最澄은 『法華經 (법화경)』을 講說 (강설) 하기 위한 「法華十講 (법화십강)」이라는 法會 (법회) 를 기획했습니다. 이 법회는 11월 24일, 中國 (중국) 에서 天臺宗 (천대종) 을 開創 (개창) 했던 天臺智者大師 (천대지자대사 538 ~ 597) 에 대한 報恩 (보은) 의 의미를 담아 그의

이 무렵부터 조정 내에서도 最澄이나 천대의 教義 (교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당시의 桓武天皇 (간무 천황) 은 천대의 가르침을 넓히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最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때 最澄은 正統 (정통) 천대의 가르침을 중국의 승려로부터 직접 듣고 또 미비한 천대 전적 (典籍) 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중국 유학을 신청했는데 이는 곧바로 허가되었습니다.

延曆 22년 (803) 4월, 遣唐使船 (견당사선) 에 同乘 (동승) 하여 현재의 大坂灣 (오사카만)

을 출발했는데 폭풍우로 인해 건당사의 渡海(도해)는 일단 중지되고 最澄은 九州(규슈)에 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最澄은 大宰府(다사이후)의 龍門山寺(소몬잔지)에서 藥師如來像(약사여래상) 4 驅(구)를 새기고 또 賀春神宮寺(가와라진구지)나 宇佐八幡(우사하치만)에도 參拜(참배)하여 渡航(도항)의 안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延曆 23년(804) 7월, 最澄은 다시 건당사 船團(선단)과 함께 出航(출항)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폭풍우를 만나 곤란을 겪었는데 最澄이 탄 배는 무사히 明州(명주) 鄞縣(무현)에 도착했습니다. 현재의 浙江省(절강성) 寧波(영파) 부근입니다.

도착 후 延曆 23년 9월 15일, 天臺山(천태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天臺山은 智顛(지의) 이래 천태종의 본거지입니다. 현재에도 國淸寺(국청사)를 시작으로 諸堂(제당), 舊跡(구적)이 山內(산내)에 點在(점재)해 있습니다. 당시의 천태산은 천태 제 6조 荊溪大師湛然(형계 대사담연(711~782)의 제자인 修禪寺(수선사)의 道邃(도수)와 佛隴寺(불룡사)의 行滿(행만)이 지도적 입장에 있었습니다.

最澄은 천태산으로 가던 도중 道邃(도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道邃는 그를 위해 서둘러 천태 전적 등의 書寫(서사)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最澄은 10월 초순, 드디어 천태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行滿(행만)으로부터 천태 교학을, 禪林寺(선림사)의 儵然(소연)으로부터 禪(선)의 가르침을 傳受(전수)했던 것입니다.

또 延曆 24년(805) 3월, 龍興寺(용흥사)의 極樂淨土院(극락정토원)에서 最澄은 唐僧(당승)과 함께 道邃로부터 大乘菩薩戒(대승보살계)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最澄의 後半生(후반생)의 悲願(비원)이 大乘戒壇(대승계단)의 확립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귀중한 경험이었

을 것입니다. 그 후 最澄은 越州(월주), 현재 紹興(소흥)의 龍興寺(용흥사)를 방문하여 順曉(순효)로부터 密敎(밀교)의 相承(상승)을 받고 일본에 귀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最澄의 중국 유학은 실질적으로는 8개월 餘(여)였는데 精力的(정력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5월에 最澄은 중국에서 입수한 많은 불교 서적이나 佛具(불구)와 함께 귀국하는 遣唐使船(건당사선)에 올라 출발하였습니다.

귀국 후 最澄은 곧바로 上京(상경)하여 歸朝(귀조) 報告(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桓武天皇은 最澄이 가지고 돌아 온 천태의 가르침을 유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대에 궁중에서만 쓰던 高級(고급) 종이를 지급하여 奈良(나라)의 七大寺(칠대사)를 위해 천태의 가르침을 7부씩 書寫(서사)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태의 가르침은 천황과 조정의 지원에 힘입어 세상에 弘布(홍포)되어 갔는데 당시 最澄에게 기대되고 있던 또 하나의 가르침이 바로 密敎(밀교)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805년 9월 7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灌頂(관정)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9월 17일 最澄은 궁중에서 밀교에 의한 祈禱(기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끊임 없이 베풀어진 밀교 법회는 당시 桓武天皇(간무천황)이 병에 걸려 권위 있는 祈禱法(기도법)을 찾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最澄에 대한 천황의 신뢰는 매우 커서 延曆 25년(806) 1월 그가 천태종도 年分度者(넌분도샤)를 인가받도록 신청하자 그 달 안에 허가를 얻게 됩니다. 이 무렵 最澄이 「하나 하나의 宗派(종파)로는 甚遠廣大(심원광대)한 佛敎(불교)를 包攝(포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의해 華嚴宗(화엄종)·律宗(율종)·三論宗(삼론종)·法相宗(법상종)과 더불어 새로이 천태종에서 뽑힌 12명(명)이 매년 규칙적으로 得道(득도)를 허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천태종은 하나의 종파로서 국가에 公認(공인)받게 되어 일본 천태종의 개종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밀교에 관해서는 最澄과 함께 중국을 건넜던 眞言宗(진언종)의 空海(구우카이)가 專門(전문적)으로 학습하여 最澄의 1년 후에 귀국했습니다. 最澄은 천태 밀교의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해 空海로부터 가끔씩 책을 빌리거나 弘仁(고닌) 3년(812)에는 灌頂(관정)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最澄으로부터 將來(장래)를 기대받고 있던 제자 泰範(다이항)이 空海의 측근이 되어 그 후 空海와의 密教觀(밀교관)의 相違(상위)가 드러나 두 사람의 사이는 疎遠(소원)해지게 됩니다. 空海는 밀교야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最澄은 「천태의 가르침과 밀교의 가르침 모두 부처가 되기 위한 것으로 優劣(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比叡山의 밀교는 最澄 이후로 圓仁(엔닌)·圓珍(엔진)·安然(안넌) 등에 의해 충실히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最澄은 弘仁 5년(814) 봄, 九州로 갔습니다. 유학에 즈음하여 폭풍우 때문에 출항이 연기된 동안 九州에 머물러 무사히 유학할 수 있도록 誓願(서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 먼저 千手菩薩像(천수보살상) 一軀(구)를 만들고 『大般若經(대반야경)』 二部(부)를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最澄이 宇佐八幡(우사하치만)의 神宮寺(진구지)에서 法華經(법화경)을 講說(강설)하자 大神(대신)이 기뻐하여 자주색 法衣(법의)를 그에게 손수 下賜(하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 最澄은 賀春(가와라)의 神宮寺(진구지)에서도 報恩(보은)을 위해 법화경을 강의했습니다. 이 때 자주색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하늘로 걸쳐 있는 등의 祥瑞(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最澄은 또 護國(호국)을 기원하여 大乘佛敎(대승불교)에 의한 布敎(포교)를 도모하기 위해 九州뿐 만이 아니라 일본 各地(각지)의 여섯 군데에 寶塔(보탑)을 건립하여 각각 『법화경』을 1000부씩 奉納(봉납)했습니다. 특히 弘仁 8년(817) 봄, 最澄은 關東(관동)으로 향했습

니다. 그 이유는 여섯 보탑 중 두 개를 關東에 세워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대승의 가르침을 넓히기 위해서였습니다. 最澄은 여행 도중 당시의 주요 도로였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廣濟院(광제원)과 廣拯院(광증원)의 두 宿所(숙소)를 세워 여행객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最澄의 사회 사업적 활동으로서 特筆(특필)할 만 한 것입니다.

이후로 最澄은 關東으로 들어가 栃木(도치기)의 大慈寺(다이지사)나 群馬(군마)의 綠野寺(미도노지)에서 菩薩戒(보살계) 授戒(수계)와 灌頂(관정)을 받았는데 이 때 두 군데 모두 寶塔(보탑) 落成式(낙성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렵부터 最澄과 法相宗(법상종)의 德一(도쿠이치) 사이에 「三一權實論爭(삼일권실논쟁)」이라 불리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最澄에 의해 천태종이 개창되기 이전의 일본 불교계에는 南都六宗(남도육종)이라 불리는 여섯 學派(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법상종과 三論宗(삼론종)이 유력한 종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兩宗(양종)에 있어서는 論書(논서)가 그 根據(근거)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最澄은 그 때까지의 이러한 논서를 근거로 하는 종파에 대해 經典(경전)을 근거로 하는 經宗(경종)으로서의 천태종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最澄이 弘布(홍포)하려 했던 천태종의 교학에 대해 南都(남도) 측으로부터의 비판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법상종의 德一과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最澄과 德一은 각각의 입장에 있어서의 佛敎觀(불교관)의 相違(상위)를 둘러싸고 논서를 인용하여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이 논쟁에 있어 결정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후 일본 불교의 展開(전개)에는 最澄의 思想(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天平 勝寶(쇼호) 4년(753)에 鑑眞(감진)이 일본으로 건너 온 이래로 奈良(나라)·

栃木 (도치기) · 福岡 (후쿠오카) 의 세 곳에 정식 戒壇 (계단) 이 설립되어 승려로서의 자격을 얻을 때에는 반드시 각각의 戒壇 (계단) 에서 受戒 (수계) 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最澄은 이 세 계단에서 받는 戒律 (계율) 이 小乘戒 (소승계) 였기 때문에 眞實 (진실) 된 大乘菩薩僧 (대승보살승) 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승계 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고 比叡山 에 새로이 국가 공인의 대승계 계단을 설립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最澄은 자신이 승려로서 공인 받았던 근거인 소승계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승려 자격을 잃게 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로서는 실로 大膽 (대담) 한 決斷 (결단) 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最澄은 比叡山에서 修行 · 修學 (수학) 하는 제도와 함께 대승 계단 독립 운동을 일으켜 많은 申請 (신청) 을 조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最澄은 불교의 출가에는 소승과 대승이 있으나 일본에는 소승의 출가자만 있을 뿐, 대승의 출가자는 없다 하여 천태종에서는 대승 菩薩乘 (보살승) 을 養成 (양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奈良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既存 (기존) 의 불교 세력에 의한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僧綱 (승강) 으로부터 反論 (반론) 이 提起 (제기) 됩니다. 이에 대하여 最澄은 스스로의 주장이 옳바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顯戒論 (겐카이론)』을 著述 (저술) 하게 되나, 그의 주장은 좀처럼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認可 (인가) 가 내려진 것은 弘仁 13년 (822) 6월 4일에 最澄이 56세로 死去 (사거) 한지 7일 째 되는 날의 일이었습니다. 이 大乘戒 (대승계) 授戒 (수계) 의 새로운 制度는 이후 일본 불교에 있어 戒律 (계율) 에 대한 思考 (사고) 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最澄은 臨終 (임종) 에 즈음하여 「내 죽음에 執着 (집착) 해서는 안 된다. 내 뜻을 後世 (후세) 에 전하라」고 遺言 (유언) 을 남겼습니다. 最澄은 대승계를 통해 누구나 「나라의 보물」이 되어 줄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念願 (염원) 했던 것입니다.

법화경과 천태의 가르침

모든 사람에게 成佛 (성불) 의 門 (문) 이 열려 있다

천태의 가르침은 중국의 陳代 (진대) · 隋代 (수대) 에 활약했던 天臺大師智顛 (천태대사지의 538 ~ 597) 의 『法華經 (법화경)』의 解釋 (해석) 이 基礎 (기초) 가 됩니다.

『법화경』은 28章 (장)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태대사는 前半 (전반) 14장과 後半 (후반) 14장으로 大別 (대별) 했습니다. 전반은 모든 사람에게 成佛 (성불) 의 門 (문) 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밝혀 說 (설) 하고, 후반은 釋尊 (석존) 의 다 함 없는 生命 (생명) 과 그 가르침의 普遍性 (보편성) 이 설해져 있습니다.

『법화경』 전반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문이 열려져 있음이 설해져 있습니다. 이를 천태대사는 一乘 (일승) 이라 稱 (칭)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승에 대해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三乘 (삼승) 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많은 부처들이나 釋尊 (석존) 께서는 다만 한 가지 큰 일을 위해 세상에 나투셨나니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가 보이도록 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처란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법화경』에 처음으로 설해진 부처의 大慈悲 (대자비) 顯現 (현현) 의 世界觀 (세계관) 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넘쳐남이 없고 홀로 떨어짐이 없으며 差別 (차별) 이나 對立 (대립) 이 없이 모든 衆生 (중생) 이 이 세계를 구성하여 저마다 중요한 役割 (역할) 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平等 (평등) 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은 물론 一切 (일체) 의 有情 (유정) · 無情 (무정) 모두가 부처

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 三乘(삼승)이라고 하는 구별이 있을 리 없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眞理(진리)는 우리에게 保證(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 전반부의 중심 과제입니다. 우리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無限(무한)한 가능성을 秘藏(비장)하고 있음을 自覺(자각)하여 넓고 높은 理想(이상)을 향해 하루 하루의 생활을 營爲(영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와 그 가르침은 영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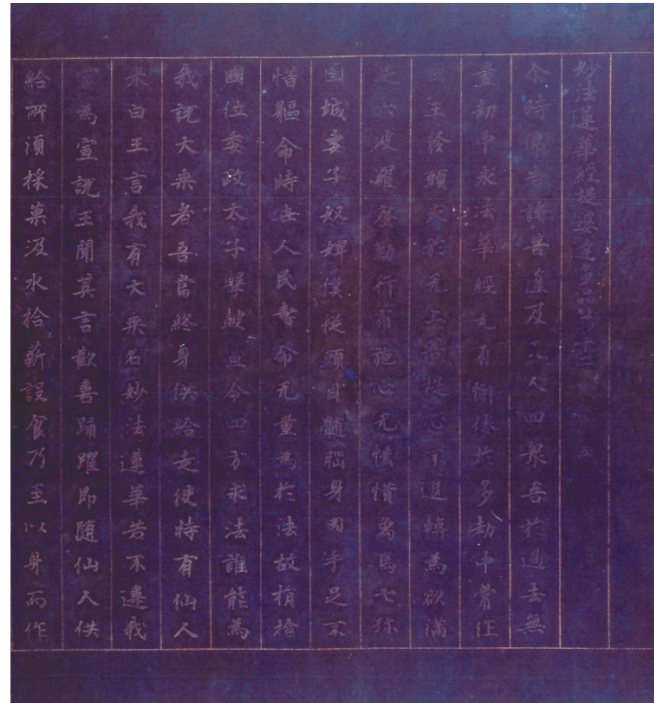
석존은 왜 入滅(입멸)하셨는가,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所依(소의)로 하여 修行(수행)하면 좋은가. 이에 대해 解明(해명)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후반부입니다. 석존은 사람들을 救濟(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렇다면 왜 涅槃(열반)에 드신 걸까요? 『법화경』에는,

만약 석존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 계신다면 사람들은 安心(안심)하고 放漫(방만)한 마음을 일으켜 나태해지고 말 것이다. 언제나 說法(설법)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르침을 듣게 되더라도 歡喜(환희)한 마음을 낼 수 없을 지니, 그렇기 때문에 석존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습을 감추시어 入滅(입멸)하신 것처럼 하여 方便(방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引導(인도)케 하셨던 것이다.

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석존께서는 열반에 드신 후에도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큰 慈悲(자비)를 『법화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의 지혜와 자비

現代(현대)에 있어서의 천태종은 最澄의 自身(자신)의 일보다는 他人(타인)을 먼저 생각하여 이롭게 하는 일은 最上(최상)의 慈悲(자비)로운 모습이라는 말씀에 따라 窮極的(궁극적) 慈悲(자비) 실천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비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根本(근본)으로, 友愛(우애)와 同情(동정)을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깜빡 잊고 지내는 일 중에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滅(멸)한



다」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을 謳歌(구가)하고 있지만 반드시 消滅(소멸)하기 마련으로, 여기에 不幸(불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모든 중생에의 配慮(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이 근본적으로 平等(평등)하여 아무런 차별도 없는 세계가 불교의 理想相(이상상)입니다. 중생 모두의 평등을 念願(염원)하고 생명을 다하려 誓願(서원)하는 바로 그 것입니다.

천태종이 가장 重視(중시)하는 『법화경』에는 불교를 따르는 자는 柔軟(유연)하게 努力(노

력)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의 옷을 입고 자비의 자리에 앉아 자비의 방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또 이를 실천하는 자는 때로는 돌팔매와 같은 迫害(박해)에 처하게 된다고도 설해져 있습니다. 이 자비를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로, 너무 理想的(이상적)이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것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菩薩行(보살행)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傳敎大師는 그것은 바로 보살행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보살행이란 깨달음을 구하여 修行(수행)에 精進(정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행은 자신의 이익을 잊고 타인의 이익이 될만한 일을 自進(자진)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이 수행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에 의해 사물에 대한 慾望(욕망)과 執着(집착)이 서서히 사라지고

자신과 타인을 평등하게 볼 수 있게 되어 깨달음에 한 발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살은 수행의 功德(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푹니다. 사람들에게 베푹는 일에 의해 보다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어 자기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傳敎大師의 마음을 現代(현대)에 되살린다

천태종의 활동

傳敎大師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기 위한 바른 깨달음인 일불승의 布敎(포교)를 志向(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 세상의 중생의 마음을 淨化(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 12년 간에 이르는 比叡山에서의 수행을 이겨내고 자신의 이익을 잊고 타인을 위해 힘을 쏟는 人材(인재)의 育成(육성)에 走力(주력)했습니다. 이러한 傳敎大師의 意志(의지)는 현대 사회에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천태종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널리 사회를 향해 전개하고 있습니다.

『圓頓菩薩戒(원돈보살계)의 授戒運動(수계운동) 전개』

원돈보살계란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목표로 한 대승 불교의 계율입니다. 원돈보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三聚淨戒(삼취정계)라 불리는 세 가지 精神(정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攝律儀戒(섭율의계; 익한일을하지않을것) 攝善法戒(섭선법계; 선한 일을 자진하여 행할 것), 攝衆生戒(섭중생계; 타인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의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또 이 원돈보살계의 授戒會(수계회)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戒(계)를 받는 敬虔(경건)한 儀式(의식)으로, 이에 의해 자신의 內面(내면)에 있는 부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사는 이 수계 의식을 일본에

傳(전)하여 대승의 정신을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을 誓願(서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돈보살계를 授戒(수계) 함으로써 진정한 佛弟子(불제자)가 되어 타인을 위해 자비심으로 활동하는 菩薩行(보살행)의 실천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천태종에서는 開宗(개종) 1200년을 記念(기념)하여 전국적으로 수계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리 비추기 운동』

「누리 비추기 운동」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한 구석을 비추는 菩薩(보살)이 되도록 노력하여 그 한 구석을 비추는 운동의 바퀴를 사회로 넓혀 나아가자는 趣旨(취지)의 사회 啓發(계발) 운동입니다. 이는 傳敎大師의 著述(저술)인 『山家學生式(산가학생시킴)』 序頭(서두)의 「나라의 보물이란 무엇인가. 보물이란 道心(도심)이다. 도심 있는 자를 이룸하여 國寶(국보)라 한다. 때문에 옛 聖人(성인)이 말씀하시길, 굽직한 大木(대목) 열 더미가 나라의 보물이 될 수 없고, 한

지 않는 생활을 하자)의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천 활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1. 유니세프 지원 활동 2. 태국의 두앙(Duang)·프라팁(Prateep) 재단 지원 활동 3. 인도의 판냐·멧다 어린이집 지원 활동 4. 라오스(Laos) 학교 건설 5. 국내 被災受害者(피해자) 구호 활동 6. 양부모 교육 제도 7. 지구 救援(구원) 모금 8. 전국 동시 托鉢(탁발) 9. 寫經(사경) 추진 운동 10. 누리 비추기의 날(매월 4일 개인 봉사 활동)



구석을 비추는 것 바로 그것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말씀에 緣由(연유)한 것입니다.

원돈보살계 수계에 의해 마음에 佛性(불성) 自覺(자각)의 燈(등)을 밝히고 세계에 빛나는 「나라의 보물」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누리 비추기 운동」은 生命(생명; 모든 생명에 감사하자)·奉仕(봉사; 普施[보시]의 정신, 無償[무상]의 理念[이념]에 기초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자)·共生(공생; 지구[地球]에 害[해]를 주



『世界(세계) 諸宗教(제종교) 와의 대화』

세계에는 아직까지도 戰禍(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宗教(종교)나 民族(민족) 문제가 原因(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기본 精神(정신)은 「모든 사람은 부처와 같은 慈悲(자비)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人種(인종)이나 민족, 종교, 習慣(습관), 思想(사상)이 다르다 해도 自身(자신)은 佛子(불자)라고 하는 굳은 信念(신념)입니다.

이 신념에 기초를 두어 昭和(쇼와) 62년(1987) 8월 3일과 4일, 比叡山 開創(개창) 1200년을 기념하여 「比叡山 宗教首腦會談(히에이산 종교 수뇌 회담)」이 本山(본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 세계 諸宗教(제종교) 代表者(대표자)가 比叡山에 모여 相互理解(상호이해)를 깊이 하고 平和(평화)를 祈願(기원)했습니다. 이는 前年(전년), 이탈리아의 아시지에서 열린 「세계 평화 기원의 날」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때 제 1회 比叡山 메세지(message)가 採擇(채택)되었습니다.



傳教大師의 말씀

得難くして移り易きは、それ人身なり。發し難くして忘れ易きは、これ善心なり。ここをもって法皇牟尼は、大海の針、妙高の線を仮りて人身の得難きを喩況す』『願文』

『比叡山 메세지』 拔萃(발취)

「平和(평화)의 祈願(기원)은 어떠한 宗教(종교)에 있어서도 根本的(근본적)인 것임을 우리들은 認識(인식)하고 또 主張(주장)합니다. 원래 평화란 단지 戰(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友好的(우호적) 融和(융화)의 상태, 人類共同體(인류공동체)의 實現(실현)을 의미합니다. 보통 正義(정의)나 慈悲(자비)가 없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이 평화야말로 모든 宗教人(종교인)에 의해 誠實(성실)히 希求(희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평화를 기원하기 이전에 평화라는 責務(책임)에 相應(상응)하지 않는다는 事實(사실)을 認定(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충실히 獻身(헌신)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內面的(내면적) 革新(혁신)이 一貫性(일관성) 있게 요구됩니다. 평화를 위해 기원한다는 것은 평화를 위해 活動(활동)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평화를 위해 苦痛(고통)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大義(대의)에 대한 奉仕(봉사)와 犧牲(희생)은 多樣(다양)한 形態(형태)와 方法(방법)이 생겨나 紛爭(분쟁)의 解決(해결), 核兵器(핵병기) 및 일반 병기의 軍縮(군축), 環境(환경)의 保全(보전), 人種(인종)·難民(난민)에의 配慮(배려), 不正(부정)한 社會制度(사회제도)의 變革(변혁) 등에 이바지하는 활동으로서 具現(구현)될 것입니다. 宗教人(종교인)은 항상 弱者(약자)의 입장에 설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使命(사명)은 너무 큰 데 反(반)해 우리들이 가진 힘은 너무도 微弱(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祈願(기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뛰어 넘는 偉大(위대)한 힘에 의해 眞實(진실)된 願(원)이 이뤄지고 우리의 切實(절실)한 念願(염원)이 成就(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確信(확신)합니다. 祈禱(기도)나 冥想(명상), 그리고 感謝(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淨化(정화)되어 微力(미력)하나마 평화를 위해 보탬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활동이 세계 到處(도처)에서 거듭되고 널리 擴散(확산)되어 全人類(전인류)가 渴望(갈망)해 마지 않는 큰 평화의 열매가 우리 시대에 열리기를 절실히 기원합니다.」

「比叡山 宗教 수뇌 회담」 개최 이래, 比叡山에서는 매년 8월 4일에 「세계 평화 기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宗教(종교) 간의 對話(대화)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세계 평화의 실현을 향해 精力的(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어역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은 어렵고,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몸은 덧없고 變化(변화)하기 쉽다. 善(선)한 마음은 일으키기 어렵고, 또 일으켰다 하더라도 잊기 쉽다. 그래서 佛法(불법) 세계의 皇帝(황제)인 釋迦牟尼(석가모니) 世尊(세존)은 大海(대해)에 떨어뜨린 바늘을 찾아 건져 올린 比喻(비유)나 須彌山(수미산)이라는 높은 山頂(산정)으로부터 실을 늘어뜨려 산기슭에 있는 바늘 구멍에 그 실이 꿰어 지는 비유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려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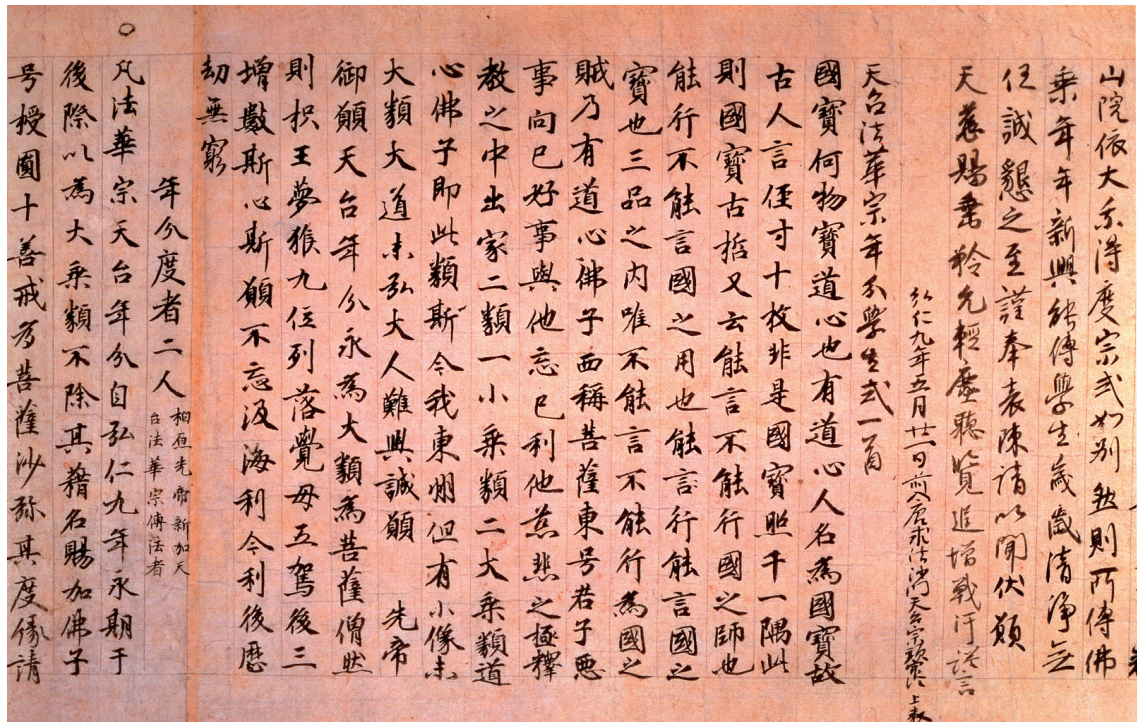
해설

우리들은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을 當然(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傾向(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衆生(중생)은 天(천), 人間(인간), 修羅(수라), 畜生(축생), 餓鬼(아귀), 地獄(지옥)의 여섯 세계의 어딘가에 다시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善行(선행)을 쌓으면 天界(천계)에 태어날 수 있지

만 만약 殺生(살생), 偷盜(투도), 妄語(망어) 등의 惡行(악행)을 犯(범)하면 지옥이나 아귀 세계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不安定(불안정)한 인간의 모습을 傳教大師는 「나기도 힘들지만 變(변)하기도 쉬운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指摘(지적)하셨습니다.

더군다나 善行(선행), 善心(선심)에 의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선행, 선심은 일으키기도 쉽지만 반대로 잊혀지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大海(대해)에 떨어뜨린 바늘을 건져 올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실을 늘어뜨려 산기슭에 있는 바늘 구멍을 꿰는 것처럼 實現(실현)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어 있는 그것이 지금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지옥이나 아귀 등 다른 다섯 세계의 어떠한 중생 보다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無常(무상)을 實感(실감)하고 佛道(불도)를 實踐(실천)할 능력을 지닌 것이 인간입니다. 佛道(불도)의 入口(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



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란 지극히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고마운」 존재라고는 하나,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尊貴(존귀)한 일입니다. 大師(대사)는 인간은 누구라도 「尊嚴(존엄)」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은 그 行爲(행위)가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 天, 人間, 修羅, 畜生, 餓鬼, 地獄이라고 하는 六界(육계)의 어딘가에 태어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古哲また云く、能く言いて行くこと能わざるは国の師なり。能く行いて言うこと能わざるは国の用なり。能く行い能く言うは国の宝なり。三品の内、ただ言うこと能わず行くこと能わざるを国の賊となすと」『山家学生式(六条式)』

현대어역

옛 哲人(철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줄만 알고 實行(실행)할 줄 모르는 자는 教師(교사), 실행할 수 있어도 自身(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主張(주장)하지 못하는 자는 勞務者(노무자)이다. 實行力(실행력)이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잘 表現(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寶物(보물)이다. 이들이야말로 最上(최상)의 階層(계층)의 사람으로, 나라의 교사와 노무자가 中級(중급)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실행에 옮길 줄도 모르는 자는 國益(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最下級(최하급)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설

前文(전문)에 이어 천태종에서 養成(양성)하려 하는 人才(인재)의 特質(특질)을 중국의 哲人(철인) 牟融(모융)의 『理惑論(이혹론)』의 말을 빌려 敘述(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發言

力(발언력)과 實行力(실행력)을 兼備(겸비)한 人才(인재)를 나라의 寶物(보물)로, 발언력이 있는 인재를 나라의 스승으로, 실행력이 있는 인재를 나라의 근로자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같은 발언력, 실행력이라 하더라도 불교의 정신에 근거해서 自身(자신)을 節制(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발언과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언이나 행동이 나라와 국민에 있어 貴重(귀중)한 寶物(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말과 행동이 모두 불가능한 자는 나라의 盜賊(도적)이라」는 嚴格(엄격)한 評價(평가)로 言及(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은 자신에게는 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거나 행동해야 할 부분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또는 獨斷的(독단적)인 주장이나 제멋대로의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批判(비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주위 사람을 위해 發揮(발휘)하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도적인 것입니다. 各自(각자)가 지닌 능력에 應(응)한 活躍(활약)의 場(장)을 提供(제공)하여 각자의 個性(개성)을 살리고자 한 점에서 傳敎大師가 指向(지향)했던 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乃ち道心あるの仏子を、西には菩薩と称し、東には君子と号す。悪事を己に向かえ、好事を他に与え、己を忘れて他を利するは、慈悲の極みなり」『山家学生式(六条式)』

현대어역

즉, 佛道(불도)를 求(구)하는 마음을 지닌 佛弟子(불제자)들을 서쪽 印度(인도)에서는 菩薩(보살)이라 하고, 동쪽의 中國(중국)에서는 君子(군자)라 이름합니다. 악한 것이나 싫은 것은 스스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이나 즐거운 것은 타인을 향해 돌려주는 利他行(이타행)이야말로 지극히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해설

道心(도심)을 지닌 사람은 慈悲(자비)의 정

신에 입각하여 자기보다 타인을 우선한 利他的 (이타적)인 활동을 理想 (이상)으로 삼습니다. 經典 (경전)에 나오는 菩薩 (보살)이나 중국의 古典 (고전)에 나오는 君子 (군자)도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도심을 지닌 人才 (인재)의 具體的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잊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은 漢文 (한문)으로는 「忘己利他 (망기이타)」라고 쓰는데 이를 標語 (표어)로 해서 걸어 둔 寺院 (사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우선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일의 중요함은 머리로 알고 있어도 실행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인을 위해 한다는 생각으로 했는데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거나, 한 번 해 보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도, 주위 사람도 向上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忘己利他 (망기이타)」의 旗幟 (기치)를 들고 理想 (이상)을 향해 노력해 가는 마음이야말로 道心 (도심)인 것입니다.

「道、人を弘め、人、道を弘む。道心の中に衣食あり、衣食の中に道心なし。」『伝述一心戒文』

현대어역

佛道 (불도)가 佛法 (불법)을 아는 자를 넓히고, 또 그러한 불법을 아는 자가 불도를 넓힌다. 불도를 구하는 그 속에 옷과 음식은 있지만, 옷과 음식을 구하는 그 속에 道心 (도심)은 없다.

해설

弘仁 3년 (812), 傳敎大師가 病床 (병상)에 누워 弟子 (제자)에게 傳 (전)했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基本 (기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殊勝 (수승)한 가르침도 그것을 理解 (이해)하고 弘布 (홍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傳承 (전승)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로 佛道 (불도)를 구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옷과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눈 앞의 物質的 (물질적) 欲求 (욕구) 充足 (충족)을 優先 (우선)시키고 마는데 이는 진정한 安樂 (안락)이라 할 수 없습니다. 傳敎大師는 불도를 구하는 중에는 자연스레 옷과 음식이 따라오고 마음의 平安 (평안)이 얻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건이 넘쳐 아무런 不自由 (부자유)도 없는 現代 (현대)야말로 傳敎大師의 이 말씀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怨みを以て怨みに報ゆれば、怨みは止まず。徳を以て怨みに報ゆれば、怨みは即ち尽く」
『伝述一心戒文』

현대어역

怨恨 (원한)에 대해 원한으로 對應 (대응)하는 한 그 원한은 그칠 줄 모른다. 원한에 대해 德 (덕)으로 대응한다면 그 원한은 사라질 것이다.

해설

弟子 (제자)인 光定 (코조)가 정리한 「傳述一心戒文 (전술일심계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한에 대해 원한으로 대응해 간다면 連鎖的 (연쇄적)으로 원한이 더 생겨날 뿐입니다. 원한에 대해 德 (덕)과 善心 (선심)을 가지고 대응해 간다면 相對 (상대)의 원한도 解消 (해소)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취지의 말이 釋尊 (석존)의 말씀인 『法句經 (법구경)』 제 5偈 (계)에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根底 (근저)에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人間關係 (인간관계)는 물론 國際關係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원한의 連鎖 (연쇄)가 비극적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는 許多 (허다)합니다. 상대가 품은 원한의 念 (념)을 어떻게 鎮靜 (진정)시켜 平穩 (평온)한 關係 (관계)를 構築 (구축)해야 하는지 하나의 方法 (방법)을 提示 (제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翻譯 : 金永晁 / 朴俊爽

緒 言

806年1月26日に、天台宗が当時の朝廷より、国家公認の仏教として認められてから、2006年は、ちょうど1200年の記念すべき年でありました。

宗祖伝教大師(最澄)は、法華一乗の、すべての人々は平等でありすべて人々が仏になれるとする教えに立って、この教えを広めんとする僧の育成を申請し認められたのであります。

大師の願いは、この天台宗の新たな公認と、さらに当時の仏教の各宗派が、すべての人々の救済のため共存し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するものでした。ゆえに朝廷は、天台宗の公認と同時に当時の仏教各宗派にも、それぞれ僧の定員を定めたのでした。

それ以来、天台宗は現在に至るまで1200年、大師の教えの法燈を伝え、日本仏教の母山として多くの宗派を生み出し、永く日本文化の源泉の一つとなってきました。

2005年の10月の開宗千二百年慶讃大法要には、実に二十六にのぼる日本仏教の教宗派が、総本山比叡山根本中堂で慶讃法要を勤めて頂きました。

また、1997年には、比叡山に世界の宗教者を迎え、初めての比叡山宗教サミット平和の祈りを開催し、以後回を重ね本年2007年8月には、20周年の記念すべき平和の祈りを開催いたします。

このような宗教宗派を越えた活動もまた宗祖伝教大師のみ心に添うものと確信しております。

天台宗の1200年の歩みの源が宗祖伝教大師の生涯とその教えに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

この小冊子によって海外の皆さまにも広くご理解頂けることを心からお願いいたします。

2007年7月吉日

天台宗宗務総長 濱中 光礼

伝教大師の生涯と教え

「国の宝とは何であろうか。国の宝とは仏道を求める心である」、1200年前に日本天台宗を開かれた伝教大師、最澄（766 or 767 ~ 822）の言葉です。この意味は、私たちそれぞれの立場、環境に応じて能力を十分に発揮しつつ、自分のことばかりにこだわらないで、他人のために活動し続ける人が、本当の宝だということです。また最澄は「目先の物質的欲求ばかりを求めることから離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言っています。最澄が目指したことは、僧侶だけでなく一般の人々も、それぞれの取り巻かれている条件に応じて国の宝となるべく自己の能力を発揮しよう、ということです。

最澄は天平神護二年（766）近江国、今の滋賀県大津市で生まれました。幼名を「広野」と名づけられました。生年については、戸籍上では天平神護二年（766）となっておりますが、一説には神護景雲元年（767）ともされています。

父親は三津首百枝といい、その祖先は中国、後漢時代の皇帝の子孫であ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最澄は十三歳の時に近江の国分寺に入って行表の弟子となりました。そして十四歳の時、出家して僧籍に加えられる最初の儀式である得度を許され、本格的に仏教の勉強に取り組むこととなります。この時、「最澄」の名をいただいたのです。

延暦四年（785）四月、二十歳の最澄は、奈良の東大寺で、小乗戒を受けて、正式な僧侶の資格を得ました。いわば、エリート僧として前途洋々でした。しかし、受戒後、三カ月ほどして比叡山に入ってしまう。最澄の故郷に近い比叡山は昔より霊山として知られていました。入山の動機については、諸説ありますが、奈良での体験によって俗世に無常を觀じ、また深い自己反省のもとに山林でのさらなる修学を志したのも、その大きな理由とされています。

入山して間もなく、最澄は修行の決意を自分自

身に誓うために『願文』を著し、五つの誓願を立てました。

- 一、私は、ものを見るこの眼や自分の意が仏に近い清浄な状態にならないうちは、世の人々を導くことを決してしない。
- 二、私は、真理を見尽くす心にならないうちは、仏道以外のことを決してしない。
- 三、私は、戒律を満足に守れないうちは、施主が招待する法会には決して出ない。
- 四、私は、何ものにも執着しない仏の智慧を体得しないうちは、世俗的な付き合いを決してしない。
- 五、私は、この現世で修行して得た功德を自分ひとりのものに決してしない。命あるものに広く廻らし与え、皆がこの上ない覺りを得られるようにしよう。

というものです。最澄の並々ならぬ決意がうかがえます。

最澄は比叡山に登り修行と学問ひとすじの生活に入りました。時がたつにしたがって最澄を慕う人たちが集まり、弟子たちも増えていったようです。延暦七年（788）に、最澄は比叡山を天台教学に基づく新しい仏教の根本道場にしたいと、比叡山寺の建立を決意し、また自ら薬師如来像を刻み、これを安置し灯明を供え、その灯明をいつまでも灯し続けるように願いました。この時の灯明が1200年間、現在まで比叡山の根本中堂に絶えることなく灯されている「不滅の法灯」です。この寺は初め一乗止観院とも称し、後に根本中堂と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の後、諸堂も次第に整備され始めました。また延暦十六年（797）、最澄は三十二歳で朝廷より「内供奉十禅師」に任命されています。これは宮中に設けられた道場で、天皇の間近に奉仕する有力な僧の一人に選ばれたことを意味しており、最澄の存在がはじめて世に認めら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比叡山において修行生活の基礎が確立し、教団としての形がまとまってきましたと、最澄は仏教経典の全集というべき一切経をそろえる計画に着手しました。この事業にはともに山上にあった仲間や弟子たちが尽力しましたが、一字一字書写するわけですから人力と費用の面で限りがあります。

そこで最澄は奈良の各寺に援助を依頼したところ、これに応じて大安寺の僧が全面的に協力を申し出てくれたのです。また東国の有力な仏教指導者、道忠(735頃～800頃)は最澄の志をくんで大量の仏典を送ってくれました。道忠の教団はその後最澄と深い関係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比叡山に経典が完備してきますと、最澄は『法華経』を講説する「法華十講」という法会を企画しました。この法会は、十一月二十四日、中国で天台宗を開いた天台智者大師(538～597)への報恩の意味も込め、その命日にあわせて開催されました。そして、今も続く霜月会の始まりとなったのです。法華十講は延暦十七年(798)から毎年、比叡山で行なわれ、延暦二十年(801)には奈良の高僧十人を招くなど、その規模も充実し、最澄の学識は次第に世に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のころから、朝廷内でも最澄や天台の教義に対する関心がよせられ、時の桓武天皇は天台の教えを広めるにはどうしたらよいか、最澄に意見を聞きました。そこで、最澄は正統な天台の教えを中国の僧より直接受け伝え、また天台の典籍の不備を補うために自身の中国留学を申し出ました。この申請は直ちに許可されました。

延暦二十二年(803)四月、遣唐使船に同乗し現在の大阪湾から出発しました。しかし、暴風雨のため遣唐使の渡海は一旦中止され、最澄は、九州に滞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期間に最澄は大宰府の龍門山寺で薬師如来像四体を刻み、また賀春神宮寺や宇佐八幡にも参拝して、渡航の安全を祈願したといえます。

明けて延暦二十三年(804)七月、最澄は再び遣唐使船団と出航しました。今回もまた暴風雨にたい困難をきわめましたが、最澄の祈りが通じたので、最澄の乗った船は無事、明州鄞県に到

着しました。現在の浙江省、寧波付近です。

到着後、延暦二十三年九月十五日に天台山へ出発することになります。天台山は智顛以来の天台宗の本拠地であります。現在も国清寺をはじめとする諸堂宇、旧跡が山内に点在しています。当時の天台山は、天台第六祖、荆溪大師湛然(711～782)の弟子である修禪寺の道邃と仏隴寺の行満が指導的立場にありました。

最澄は天台山へ行く途中で、道邃に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道邃は最澄のために、さっそく天台典籍等の書写の段取りを整えてくれたのです。最澄は十月に初めに本来の目的地である天台山に入りました。ここで最澄は、行満から天台教学を、禪林寺の儵然から禪の教えを伝授されたのです。

さらに延暦二十四年(805)三月、龍興寺の極楽浄土院において、最澄は唐僧と共に道邃より、大乘の菩薩戒を受けました。このことは最澄の後半生の悲願が大乗戒壇の確立にあったことを思いますと、貴重な経験だったことでしょう。その後、最澄は越州、現在の紹興の龍興寺を訪れ、順暁より密教の相承を受け、日本に帰国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最澄の中国留学は実質的には八カ月あまりでしたが、精力的に多くのことを学んだのです。

そして五月に最澄は中国で入手した多くの典籍や仏具とともに、帰りの遣唐使船に乗って出発しました。

帰国後、最澄はただちに上京して帰朝の報告をしました。するとか桓武天皇は最澄が持ち帰った天台の教えを流布させたいと望みました。そこで紙が貴重な時代に宮中で用いる高級な紙を支給して、奈良七大寺のために天台の教えを七部ずつ書写させました。

こうして天台の教えは、天皇や朝廷の助力もあって世に弘まっていきましたが、最澄に期待されていたもう一つの教えが密教であったのです。このことから同年九月七日に、日本で最初の灌頂の儀式が行わ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続いて同十七日には、最澄は宮中で密教による祈祷を修しています。この矢つぎばやに行われた密教法会は、当時、桓武天皇が病に冒されており、権威ある祈

禱法が求められていたことと関係がありました。

最澄に対する天皇の信頼は非常に大きいものであり、延暦二十五年(806)一月、最澄が天台宗にも年分度者を認めてもらいたいと申請すると、その月のうちに認められました。その際、最澄が「一つ、二つの宗派では、極めて広大な仏教を汲み尽くすことなどできない」と主張したことにより、華嚴宗・律宗・三論宗・法相宗に加え、新たに天台宗より選ばれた十二名が、毎年規則的に得道を許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ここに天台宗は一宗として国家に公認されることとなり、日本天台宗の開宗が実現しました。

ところで密教に関しては、最澄とともに中国に渡った真言宗の空海が専門的に学び、最澄の一年後に帰国しました。最澄は天台宗の密教の不十分さを補うために、空海よりたびたび書物を借りたり、弘仁三年(812)には空海のもとで灌頂をも受けております。しかし、最澄が将来を期待した弟子である泰範が空海のもとに去り、その後空海との密教観の相違が顕わになり、両者は疎遠になっていきます。空海は密教こそ重要だと考えましたが、最澄は「天台の教えと密教の教えのどちらでも仏になれるため、優劣はない」と主張しました。比叡山の密教は、最澄の後、円仁・円珍・安然らにより、およそ百年をかけて充実・完成していきました。

さて最澄は弘仁五年(814)春、九州へ行きました。これは留学の際、暴風雨のため出航が延期された間、九州に滞在し、無事に留学できるよう祈ったお礼参りでした。そこでまず千手菩薩像一体を造り、『大般若経』二部を製作しました。

次に最澄が宇佐八幡の神宮寺で法華経を講じたところ、大神が随喜して紫衣を最澄に手ずから授けたといわれます。この後、最澄は賀春の神宮寺でも報恩のため法華経を講じています。このときに紫雲が賀春の峰から大空にかかるなどの瑞相が現わ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

最澄はさらに護国を祈り大乘仏教による布教を図るため、九州だけでなく日本各地の六ヶ所に宝塔を建立し、それぞれに『法華経』を一千部ずつ納めました。特に弘仁八年(817)春、最澄は関東へ赴きました。その目的は、六ヶ所の宝塔のう

ちの二つを関東に建立し、『法華経』を中心とした大乘の教えを弘めるためでありました。最澄はその旅の途中、当時の主要道にあった交通の難所に広濟院と広拯院という宿泊所を建て、旅人の便宜を図ったのです。最澄の社会事業的活動として特筆されましょう。

この後、最澄は関東に入り、栃木の大慈寺や、群馬の緑野寺で菩薩戒授戒や灌頂を行ないましたが、両所での宝塔落成には多数の人々が参ま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

なお、この頃より最澄と法相宗の徳一との間で「三一権実論争」と呼ばれる論争が起こります。

そもそも、最澄により天台宗が開かれる以前は、日本の仏教界には南都六宗と呼ばれる六つの学派が存在し、中でも法相宗と三論宗がその有力な宗派でありました。そして、この両宗においては論書がそのよりどころとなっていたのです。最澄はそれまでのそうした論書をよりどころとする宗派に対して、経典をよりどころとする経宗としての天台宗を広め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ました。

ところが、最澄の広めようとする天台宗の教学に対して、南都の側からも批判が出されるようになり、中でも、法相宗の徳一との間に激しい論争が起こったのです。最澄と徳一は、それぞれの立場における仏教観の相違をめぐって、論書を交わした論争を繰り返しました。この論争において、決定的な結論は出ませんでした。後の日本仏教の展開には、最澄の思想が大きく影響を及ぼしています。

ところで日本では、天平勝宝四年(753)に鑑真が来日して以来、奈良・栃木・福岡の三ヶ所に正式な戒壇が設けられ、僧としての資格を得る時には必ずそれぞれの戒壇で受戒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した。しかし最澄はこの三戒壇で授ける戒律が小乗戒であって、真の大乘菩薩僧の道を歩もうとする者には、大乘戒だけを授けるべきだと考えたので、比叡山に新たに国家公認の大乘戒の戒壇を設立しようと計画したのです。そこで最澄は、自分が僧として公認された根拠である小乗戒を捨ててしまったのです。このことにより僧の資格がなく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が、大変な決断でした。

このように最澄は比叡山で修行し学ぶ制度とあわせ、大乘戒壇独立の運動を起こし、多くの申請を朝廷に提出しました。その中で最澄は、仏教の出家には小乗と大乘があるが、日本には小乗の出家者だけで、大乘の出家者はいないとして、天台宗では大乘の菩薩僧を養成したいと主張したのです。しかし、奈良地方を中心とする旧来からの仏教勢力による強力な反対にあい、僧綱から反論が加え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に対して、最澄は自らの主張の正しさを示すために『顕戒論』を著すことになるのですが、最澄の主張は、なかなか許可されませんでした。

やっと認可されたのは、弘仁十三年(822)六月四日に最澄が五十六歳で死去した後、七日目のことです。この大乘戒授戒の新制度は、後の日本仏教における戒律の考え方に大きな影響をもたらしました。最澄は亡くなるときに「私の死にこだわってはいけません。私の志を後世まで伝えなさい」と言い残しました。最澄は大乘戒を通して誰もが「国の宝」になってくれることを最後まで願ったのです。

法華経と天台の教え

すべての人に成仏の門が開かれている

天台の教えは、中国の陳代・隋代に活躍された天台大師智顛(538～597)の『法華経』の解釈が基になります。

『法華経』は二十八章で構成されていますが、天台大師は前半十四章と後半十四章で大別しました。前半は、すべての人に成仏の門が開かれていることが説き明かされ、後半は釈尊の限りない命と、その教えの普遍性が説かれています。

『法華経』の前半では、あらゆる人々に成仏の門が開かれていることが説き明かされています。このことを天台大師は一乗と呼びます。また、この一乗に対して成仏できない人がいることを三乗と呼びます。経典には

多くの仏たちや釈尊は、ただ一つの大事なことのために世の中に出て来ている。それはすべての人々に仏が見えるようになってもらい、きれいな気持ち

になってもらうためののだ。仏というものはどのようなものかわからせるために、人々がみな仏になってもらうために出て来ているのだ。

と説かれています。そしてその裏付けとして、『法華経』で初めて明らかにされた、仏の大慈悲のあらわれである世界観が示されます。

それは、この世に存在するものはどれも無駄がなく、隔てがなく、差別対立がなく、すべてのものがこの世界を構成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あらゆるものが平等に存在するのは、人はもちろん生きとし生けるものすべてが仏となる可能性を持つからです。従って、本来三乗という区別などあろうはずもなく、すべての人が必ず仏になれると、私は我々に保証しているのです。

これが『法華経』前半部分の中心課題です。私たちはその教えに従い、自分自身が仏になれる無限の可能性を秘めていることを自覚して、広く高い理想に向かって日々の生活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仏とその教えは永遠である

釈尊はどうして入滅されたのか、またその後、弟子たちは何をよりどころとして修行すればよいのか。そのことを解き明かしているのが『法華経』の後半です。

釈尊は人々を救うために、この世に姿を現したはずなのですが、なぜ入滅されたのでしょうか。

『法華経』には、

もし釈尊がこの世に永遠に生き続けたならば、人々は安心して傲った心を起こし、怠惰になってしまう。いつでも説法を聞けると思えば、教えを聞いても喜びの心を起こさないだろう。そこで釈尊はこの世から姿を消し、入滅したと思わせる方法で、人々を導こうとしたのである

と説かれています。釈尊は入滅されても、私たちに法を説き続けているのです。私たちは、その仏の大なる慈悲を、『法華経』を通じて知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仏の智慧と慈悲

さて、現代の天台宗は、最澄の「自分のことは後にして、他を利することが慈悲の究極である」という言葉に従い、その教えを日々の生活で実践せざるべく歩みを進めております。慈悲とは、ブツダの教えの根本であり、友愛と同情を意味する言葉から生まれました。私たちがつい忘れてしまうことに「命あるものは必ず滅する」という真理があります。今、生命を謳歌していても必ず滅んでいき、悲しみが生じます。そこで生きとし生けるものへの優しい配慮が必要となるのです。自分と他者とは根本において平等であり、何の差別もない世界が仏教の理想の世界なのです。生きとし生けるものすべての平等を願い、命を全うして欲しいという祈りそのものなのです。

天台宗が一番大切に『法華経』には、仏教者は柔軟に努力する心を持って、仏の慈悲の衣を着て、慈悲の座に坐り、慈悲の室に住まなくてはならないと説かれています。また、これらを実践する人は時に石を投げられるような迫害に遇うとも説かれています。この慈悲を実践することは困難なことであり、理想に過ぎないと言われるかも知れません。でもこの理想に向かって一步一步絶えざる努力を積み重ねることが仏教そのものなのです。

菩薩のおこない

ところで、人間として生まれてきた者のすべきことは何でしょうか。

それは菩薩行であると伝教大師は述べています。菩薩とは、悟りを求めて修行に励む人ですが、最も大切な修行は自分の利益を忘れて他人の利益になることをすすんで行うことです。この修行をしっかりと実践することにより、ものごとに対する欲望と執着心が徐々に減ってゆき、自分と他人とを平等に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き、悟りへと近づいていきます。そして菩薩は修行の功德を他の人々に施します。人々に施すことによってさらに悟りへと近づき、自分自身も幸せ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るうちに菩薩の行いに励むことを誓われ、私たちに人として生きる道を諭されているのです。

伝教大師の心を現代に生かす

天台宗のとりくみ

伝教大師は、すべての人が仏になるための正しい教え一仏乗を広め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した。それは同時にこの世の中の衆生の心を浄めると言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十二年間におよぶ比叡山での修行を課して、己の利益をわすれて他のために尽くす人材の育成につとめたのです。この伝教大師の意志は、現代の社会でどの様に活かされるべきでしょうか。天台宗では次のような活動を広く社会に向けて展開しています。

『円頓菩薩戒の授戒運動の展開』

円頓菩薩戒とはすべての人々を救うことを目標とした大乘仏教の戒です。円頓菩薩戒で、最も重要なことは、三聚浄戒と呼ばれる三つの精神です。具体的には、攝律儀戒(悪いことはしない)、攝善法戒(善いことを進んでしよう)、攝衆生戒(他の人の幸せのために尽くそう)の三つを指しています。

またこの円頓菩薩戒の授戒会は、仏さまより直接に戒をいただく尊い儀式であり、それによって自分の中にある仏に気付くことができます。大師はこの授戒の儀式を日本に伝え、大乘の精神を世に広めることを誓いました。人々はこの円頓菩薩戒を授戒することによって真の仏弟子となり、他のために慈悲の心で働く菩薩行の実践を続けていくのです。

天台宗では、開宗千二百年を記念して全国的に授戒会を展開しております。

『一隅を照らす運動』

「一隅を照らす運動」は自分自身が一隅を照らす人(菩薩)になるようにつとめ、その一隅を照らす運動の輪を社会へと広げていこうとする社会啓発運動です。これは伝教大師の著『山家学生式』の冒頭の、「国宝とは何物ぞ、宝とは道心なり、道心ある人を名付けて国宝となす、故に古人の曰く、徑寸十枚これ国宝にあらず、一隅を照らす、これ

即ち国宝なり」という言葉にちなんだものです。

円頓菩薩戒受戒により心に仏性自覚の灯をともし、世界に輝く「国宝」となるようにつとめましょう。

「一隅を照らす運動」は生命（あらゆる命に感謝しよう）・奉仕（布施の精神、無償の理念に基づきありがとうの心で実践しよう）・共生（地球に優しい生活をしよう）の三つの実践目標を設けています。具体的には以下のような実践活動を行っています。1 ユニセフ支援活動、2 ドゥアン・プラティーブ財団（タイ）支援活動、3 パンニャ・メッタ子どもの家（インド）支援活動、4 ラオス学校建設、5 国内被災者救護活動、6 教育里親制度、7 地球救援募金、8 全国一斉托鉢、9 写経推進運動、10 一隅を照らす日（毎月四日 個人のボランティア活動）

『世界の諸宗教との対話』

世界にはいまだ戦禍が絶えず、それらの多くは宗教や民族の問題が原因となっています。天台宗の基本となる精神は、「すべての人は仏と同じ慈悲の心をもっている」というものです。人種や民族、宗教、習慣、思想が違っていてもみな仏の子であるという固い信念です。

その信念に基いて、昭和六十二年(1987)八月三日、四日、比叡山開創千二百年を記念して「比叡山宗教サミット」が比叡山で開催されました。仏教、キリスト教、ユダヤ教、イスラム教、ヒンドゥー教、その他世界の諸宗教の代表者が比叡山に集まり、相互理解を深め、共に平和を祈りました。これは、前年にイタリアのアッシジで行われた、「世界平和祈願の日」の精神を受け継ぐものでした。また、その際に第一回の比叡山メッセージが採択されました。

伝教大師のことば

得難くして移り易きは、それ人身なり。発し難くして忘れ易きは、これ善心なり。ここをもって法皇牟尼は、大海の針、妙高の線を仮りて人身の得難きを喩況す』『願文』

現代語訳

人間として生まれることは難しく、また生まれたとしてもその身体ははかなく移ろいやすい。善心が発するのが難しく、また発したとしても忘れやすい。だからこそ、仏法の世界の皇帝である釈迦牟尼世尊は、大海に落とした針を探して拾い上げる喩えや、須弥山という非常に高い山の頂から糸を垂らして、麓にある針の穴にその糸を通す喩えをもちいて、人間として生まれることの難しさを教えている。

解説

私たちは、自分が人間として生まれ、生きていることを当たり前のことと考えがちです。しかし、仏教では、すべての生きものは、天、人間、修羅、畜生、餓鬼、地獄という六つの世界のどこかに生まれゆくと考えています。善行を積み、天の世界に生まれることができるけれども、もし殺生・盗み・嘘つきなどの悪行をおかせば、地獄や餓鬼の世界におちてしまうというのです。そうした不安定な人間の姿を、伝教大師は「得難くして移り易きはそれ人身なり」と指摘しました。しかも、善行、善心によって人間に生まれるわけですが、善行・善心は起こしがたく忘れやすいものです。ですから人身を受ける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大海に落とした針を拾いあげたり、世界一高い山の頂上から糸を垂らして麓の針の穴に通すように、万が一にも実現不可能なことが実現している、それが今ある私たちなのです。

さらに、地獄や餓鬼など、他の五つの世界のどの生きものよりも、仏の教えを聞いて無常を感じ仏の道を実行する能力をそなえているのが人間です。仏の道の入り口にもっとも近い場所にいるのです。そう考えると、人間とはまったく「ありがたい」存在なのです。「ありがたい」存在であるけれども、人の一生は短く「はかない」ものである。だからこそ人間として今あることは尊いのです。大師は、人間はだれもが「尊敬」ある存在であると教えています。「私たちは、自分が人間として生まれ生きていることを当たり前のことと考えがちです。しかし、仏教では、すべての生きものは、その行いの善か悪かによって、天、人間、

修羅、畜生、餓鬼、地獄という六つの世界のどこかに生まれゆくと教えています。」

「古哲また云く、能く言いて行うこと能わざるは国の師なり。能く行いて言うこと能わざるは国の用なり。能く行い能く言うは国の宝なり。三品の内、ただ言うこと能わず行うこと能わざるを国の賊となすと」『山家学生式（六条式）』

現代語訳

昔の哲人は「自分の考えをよく主張できるが、実行をとまなわないものは、国の教師である。実行ができて、自分の考えをうまく主張できないものは、国の働き手である。実行力があって、自分の考えをよく主張できる人こそ国の宝である。上級が国の宝、中級が国の教師と働き手となるが、自分の考えを言うこともできなければ、行うこともできないものは、下級で国のためにならないものである」といっている。

解説

前文に続けて、天台宗で養成しようとする人材の特質を、中国の哲人(牟融^{ぼうゆう}『理惑論^{りわくろん}』)のこたばを借りて述べています。すなわち、発言力も実行力もある人材を国の宝に、発言力のある人材を国の師に、実行力のある人材を国の働き手として育てようと考えたのです。ただ発言力や実行力と言っても、仏教の精神に基づき、自分を律し他人を思いやる発言であり行動です。そうした発言や行動が、国とそこに住む人々にとって、大切な宝となるのです。そのことはまた、「言うことも行うこともできないものは国の賊である」という厳しい評価にも表われています。実は自分には大きな能力が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言うべきことを言わない、行うべきことを行わない、また独りよがりの主張や自分勝手な行動をする、そのような人々に向けた批判です。自分の能力を周囲のために発揮しないものこそ、賊なのです。それぞれが持つ能力に応じた活躍の場を与え、それぞれの個性を生かそうとしている点に、伝教大師の目指す仏教のすがたが窺えます。

「比叡山メッセージ」抜粋

「平和の願いは、いかなる宗教にとっても根本的なものであることをわれわれは認識し、かつ主張する。そもそも平和とは、単に戦争が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く、人間どうしの睦み合う融和の状態、人類共同体の実現をいう。およそ正義や慈悲のないところに平和はない。かかる平和こそ、すべての宗教者によって誠実に希求されなくてはならない。われわれが祈るとき、われわれはまず平和の務めに相応しからぬことをみとめざるをえない。そのゆえに、より忠実に献身しうよう、自らの内面的革新をひたすら乞い求める。平和のために祈ることは、平和のために働くこと、そして平和のために苦しむことですらある。平和の大義に対する奉仕と犠牲は、さまざまなかたちや方法であらわされ、紛争の解決、核兵器および通常兵器の軍縮、開発、環境の保全、人種、難民への配慮、不正な社会制度の変革などに資する働きとして具現されるであろう。宗教者は、常に弱者の側に立つことを心がけなければならない。われわれの使命はあまりに大きく、われわれの力はあまりに小さい。それゆえわれわれは、まず祈り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われわれを超えた大いなる力によってわれわれの真実の祈りは聴かれ、われわれの切なる願いは顧みられることをわれわれは認識し確信する。祈りや瞑想、さらに感謝を通して、われわれの心と思いは浄められ、ささやかなりとはいえ平和のために役立つものとならしめられるであろう。平和のために祈るべくここに集まったわれわれの営みが、世界の到るところで繰り返され、繰り返され、全人類が渴望してやまないこの大いなる平和の賜物が、われわれの時代に与えられんことを切に祈る。」

「比叡山宗教サミット」開催以来、比叡山では毎年八月四日に「世界平和祈りの集い」が続けられています。また、世界各地で開かれる宗教対話に積極的に参加し、世界平和の実現を目指して精力的に活動しています。

「乃ち道心あるの仏子を、西には菩薩と称し、東には君子と号す。悪事を己に向かえ、好事を他に与え、己を忘れて他を利するは、慈悲の極みなり」『山家学生式（六条式）』

現代語訳

すなわち、仏道を求める心を持っている仏弟子たちを、西のインドでは菩薩といい、東の中国では君子と名づけている。悪いことや嫌なことは自分で引き受け、よいこと好ましいことは他人にふり向ける、自分のことをおいて、他人に利益をあたえることこそ、慈悲のきわまったすがたである。

解説

道心を持つ人は、慈悲の精神にのっとり、自分よりも他人を優先した利他の活動を理想とします。経典に出てくる菩薩や中国古典に出てくる君子も名前は異なっていますが、みな道心をもつ人材の具体的なすがたです。

「己を忘れ他を利する」は、漢文では「忘己利他」と書き、標語として掲げている寺院も多くあります。しかし、普段自分の利益や都合を優先して生活している私たちにとって、他人のために行動することの大切さは、頭でわかっている、実行するとなるとなかなか難しいものです。他人のためと思って動いても、上手く行かないことも多いでしょう。しかし実現できないから行わない、一度やって失敗したからもうやらない、というのでは自分も周囲も向上していきません。「忘己利他」の理想を掲げ、そこに向けて努力していく心こそが道心なのです。

「道、人を弘め、人、道を弘む。道心の中に衣食あり、衣食の中に道心なし。」『伝述一心戒文』

現代語訳

仏道が、仏法を知る人を弘め、またそうした仏法を知った人が仏道を弘める。仏道を求める心の中に、衣食はあるのであって、衣食を求める中には道心はない。

解説

弘仁三年(812)、伝教大師が病床にあって、弟子に伝えたことばです。仏の教えを伝え広める基本は、人にあります。どんなにすぐれた教えでも、それを理解し広める人がいなければ伝わりません。そのためには、真に仏道を求める心が何より大切なのです。しかし、人は衣食が無ければ生きていけません。そこでどうしても目先の物質的な欲求充足を優先させてしまうのですが、そこには、本当の安楽は有りません。伝教大師は、仏道を求める中にこそ、自然と衣食もついてくるし、心の平安が得られるというのです。ものがあふれ何不自由ない現代こそ、伝教大師のこのことばは大きな意味をもつ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怨みを以て怨みに報ゆれば、怨みは止まず。徳を以て怨みに報ゆれば、怨みは即ち尽く」

『伝述一心戒文』

現代語訳

怨みに対して怨みで対応している限り、怨みが止むことはない。怨みに対して徳をもって対応するならば、怨みは尽きるのである。

解説

弟子の光定がまとめた「伝述一心戒文」にあることばです。怨みに対して怨みで対応している、連鎖的に怨みが生まれるばかりです。怨みに対しても徳、善の心をもって対応していけば、相手の怨みも解消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同様のことばは、釈尊のことばである『法句経(ダンマパダ)』第五偈の中にも見られ、仏教の根底にある教えでもあります。

人間関係はもとより、国際関係においても、怨みの連鎖が悲劇的な結果を招くケースが多々あります。相手の懐く悪意や怨念をいかに静め穏やかな関係を構築するか、一つの方向を示していることばです。

伝教大師の生涯と教え

2007年10月 初版第1刷発行

刊行者 開宗千二百年慶讃大法会事務局

局長 天台宗宗務総長 濱中 光礼

奉行 延暦寺執行 清原 恵光

発行者 宗教法人天台宗(天台宗務庁教学部)

滋賀県大津市坂本4-6-2 〒520-0113

電話 077-579-0022

ファックス 077-579-2516

<http://www.tendai.or.jp>

印刷所 有限会社立花印刷

制作 株式会社ティー・マップ(大正大学事業法人)

表紙 伝教大師坐像(滋賀・観音寺蔵)



写真提供：読売新聞大阪本社